

서울시, 여성기업 키운다... 해외 판로개척 등에 2억 투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 뒷받침
온라인 전시관·미니 홈페이지 구축 지원
실무 강의 등 여성경제인 역량 강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가 여성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나선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억원을 들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 추진하는 여성기업 육성 사업을 뒷받침해 여성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여성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고도화 ▲여성기업 모바일 전자책 제작 ▲여성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여성 경제인 역량 강화 교육 ▲여성기업 해외 판로개척 등이다.

먼저 시는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문

화가 확산돼 온라인 채널을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내 여성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미니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온라인 상시 홍보 채널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여성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을 홍보,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성 기업에 대한 정보와 제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홈페이지와 주요 사업, 바우처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책도 펴낸다. 6월 중 참여 기업을 모집해 7~10월 전자책 제작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여성기업 홍보 책자 500부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여성 기업을 홍보하는 동영상도 만든다. 시는 기업별 1분 이내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여성기업 비즈니스 플랫폼에 게재한다. 이를 통해 시는 기업의 홍보 채널을 늘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여성기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마케팅, 재무 등 분야별 실무 위주 강의를 통해 여성 경제인의 경영 능력을 제고하고, 전문

가·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여성기업의 판매처 다양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여성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라자다) 입점을 지원, 제품 마케팅과 현지 판매를 돕는다. 시는 여성기업의 동남아 판로 개척을 통해 기업들이 신규 거래처를 확보, 경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연구원이 지난 2020년 6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관내 여성기업 380곳의 경영·기획·전략·인사·총무 부문 책임자를 대상으로 벌인 정책 수요 조사 결과 '경영안정 자금 지원'(38.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성년의 기쁨 함께 하세요”

천우각 광장서 성년례 재현행사

서울시는 올해 제50회 성년의 날을 맞아 이달 16일 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 광장에서 전통 성년례 재현행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전통 성년례'는 인생을 살아가며 거치게 되는 '관혼상제(冠婚喪祭)' 가운데 첫 '관(冠)'을 의미한다. 관혼상제에는 갓(冠), 혼인할 혼(婚), 죽을 상(喪), 제사 제(祭)가 있는데, 예부터 혼례를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관례나 계례를 먼저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행사는 성년이 됨을 알리는 고천의식을 시작으로, 성년의 결의 및 가례(의복과 족두리 착용), 초례(차와 다과), 수훈례(수훈첩 증정), 감사의례(부모님께 큰절)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설비공사원가 산정 해설서 개발

과잉 설계 차단... 예산낭비 방지 기대

서울시는 기계·전기 설비공사의 공사원가 중 노무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해설서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단위 물량(자재)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의 품을 수치화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시 관계자는 “표준품셈은 건설현장의 신재료·신기술 도입, 공사장비의 다양화에 맞춰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며 “품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정확한 품셈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표준품셈이 잘못 적용돼 발주가격이 낮게 산정되면 시공자나 공급자가 손해를 보게 돼 부실공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며 “반대로 발주가격이 너무 높으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뿐 아니라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표준품셈 해설서 개발 배경을 밝혔다.

시는 이번에 개발된 ‘전기공사 표준품셈 해설서’와 ‘자동제어설비 해설서’가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과잉 설계 소지를 원천 차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공사 표준품셈 해설서는 표준품셈 이해 및 실제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표준품셈 일반 ▲표준품셈 관리체계 ▲표준품셈 적용기준 ▲접지공사 ▲건축물 설비공사 해설로 구성됐다.

자동제어설비 해설서는 자동제어시스템 구성, 설계절차, 실제 설계예시를 상세하게 기술해 초보자도 설비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미래서울 이끌 185개 기업 윤곽

서울시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선발
입주공간·투자유치 등 성장지원

서울시는 32개 캠퍼스타운에서 창업경진대회를 열고, 창업공간·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85개 미래유니콘 기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지역대학이 협력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2017년 첫발을 땀다.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에는 ▲입주공간 ▲창업지원금 ▲투자유치 ▲창업교육·컨설팅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

/김현정 기자

이라며 “바이오·디자인 등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오픈이노베이션 도입 등 캠퍼스타운별 차별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캠퍼스타운은 자체적인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GA·Global Accelerating)을 개설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한다. 건국대 캠퍼스타운은 칭화대 기술지주, 북경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해 창업기업과 중국 현지 벤처투자사·기술지주펀드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고려대, 서강대, 한성대, 건국대 캠퍼스타운이 예비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캠퍼스타운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 이용 모습.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 ‘복직’

열흘간 5000명 이상 방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5일 개장한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에 열흘간 500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나루 모두의 놀이터는 서울시의 첫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로, 규모가 6000㎡에 이른다. 180㎡ 크기의 그물망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는 대형 놀이기구,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네, 높이와 모양이 달라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철봉, 급수시설이 연결된 모래놀이대 등이 마련됐다.

이 놀이터는 지명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조경작업소울’의 작품이다. 도심의 소규모 놀이터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폭넓은 난이도의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어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본부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16일 (월)
음력 : 4월 16일

수도권 날씨
12~2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8/24
동두천 9/24
가평 5/24
양평 8/24
용인 11/22
평택 7/24
수원 11/22
인천 13/20
파주 7/22
백령도 11/18
서울 12/23

해돋이 / 05:22 | 해질 / 19:3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고양시, ‘경기 관광특구 진흥계획’ 평가 1위

지정요건·지속가능성 등 고평가

고양시는 경기도가 진행한 ‘2021년도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 평가’에서 파주, 수원, 동두천, 평택을 포함한 경기도 5개 관광특구 중 고양시가 관광특구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시는 2020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비대면 온라인 푸드&비어 페스티벌 개최 ▲고양관광 명소를 배경으로 한 온택트 버스킹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고양관광정보센터의 창의적 활용 ▲고양 인근 지역과의 연계 코스 운영 및 상황에 따른 기획노선을 시도한 고양시티투어도 호평을 받았다. 그외에도 특구 지정요건과 잠재성,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거리두기 풀리니 회식 갑질도 급증 “회식 안 가니 퇴사 압박”
- ▲ “중대재해법 개정” 예고...경영계 요구 얼마나 수용할까



- ▲ 야외 마스크 벗자 ‘길거리 흡연’도 증가...시민들 불편 호소
- ▲ 육아기 근로자 ‘주 15~35시간’ 단축 근무 확대 추진



- ▲ ‘스승의날’ 폐지 원하는 교사들...“존중 없고 부담만”
- ▲ 대법 “2014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국가배상책임 없어”